

#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불교의 진리

경전·설화·법어로 들려주는 부처의 가르침

“사람이 깊어지면 애정이 짝되고, 사랑이 있으면 고통의 그림자가 따르나니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고통의 그림자를 깊이 관찰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빨처럼 ...’이라는 구절은 공지영의 소설을 떠오르게 하지만 이 글은 불교 경전 스타니파나의 한 구절이다.

사람들은 흔히 불교가 생활과는 거리가 먼 구도수행자의 것으로 생각한다. 불경읽기는 난해하고, 법문은 어렵고, 절에 찾아가 문기도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불교의 수많은 경전에는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다. 요즘같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줄기 빛처럼 우리를 위무하는 구절 또한 적지 않다. 최근에 나온 책이 아니더라도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불교 관련서는 의외로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 이야기로 읽는 불교 교리

불교의 교리를 해설한 책 중에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 있다. 《석가의 본심》(오카와 류호, 강영숙 옮김, 출판시대) 같은 책이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반성법의 신비를 가르친다.

“아무리 열심히 접시를 닦더라도, 행주가 더러우면 접시가 깨끗해질 리 없다. 접시를 닦기 위해서는 우선 행주부터 깨끗이 세탁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

석가의 출가와 득도의 과정을 이야기하듯 재현하는가 하면 석가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현대적 법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교리가 아니라 이야기로 읽어도 재미있다.

책 제목에 숫자를 넣는 최근의 유행을 따르는 책들도 불교에서 배울수 있는 ‘진리’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진현중, 혜음)와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석성우, 석지현 엮음)가 그런 책이다.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는 진짜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팔만대장경에 수록된 이야기들이다. 그중에서도 불교 설화를 발췌 수록했는데, 시공을 넘나드는 내용 속에서 생활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불교가 생활과는

거리가 먼 구도수행자의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 경전엔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석가의 출가와 득도과정을

이야기하듯 풀어나가거나

석가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현대적

법이론으로 설명한 책들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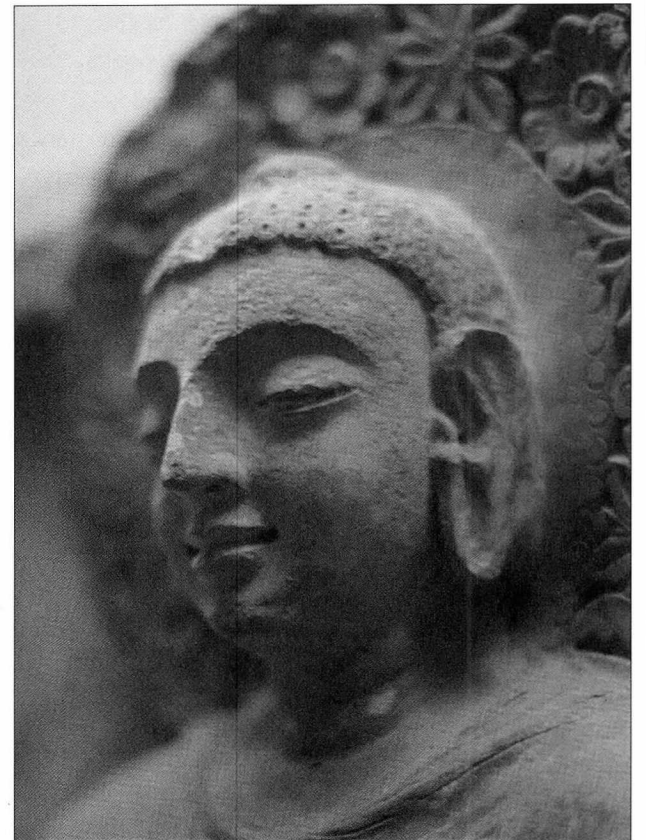
민족사에서 나온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 경전에 있는 명구들을 모았다. 예를 들어 “일을 피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데 두게 되나니 어려운 장애를 극복하고 일을 성취하라”(보살삼매론 중에서는) 등 잠언, 경구 등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 푸근하다.

민족사의 ‘작은 책과 떠나는 불교여행’ 시리즈는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면서 글 읽는 재미를 한껏 북돋아 주는 책들이다. 《새벽삭발》(석성우), 《선》(석지현), 《인연》(서정주), 《보려고 하는 놈이 누구냐》(최인호), 《꿈처럼 살고 싶다》(윤후명) 등은 특히 재미를 더한다.

스님들의 법어집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따뜻한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다. 성철스님 법어집 《자기를 바로 봅시다》(장경각)는 87년에 초판을 발간해 98년 2월 현재 21쇄나 찍었다.

##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법어

법어집이나 수필의 형식을 띤 불교서적은 수없이 많이 나와 있다. 최근 눈에 띄는 책으로 안양 한마음선원에 기거하고 있는 대행스님의 법어집 《삶은 고(苦)가 아니다》(혜원스님 엮음, 여시아문)는 “말 한마디 잘 못하여 오백생 동안 여우의 탈을 못 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 한 번 잘못에, 말한 마디 그르쳐서 자칫 동물의 틈바구니로



인도의 녹아원 박물관의 불상. 부처의 가르침은 시공을 넘어 생활의 지혜와 교훈을 준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며 불법을 설교한다. 불교는 생명의 이치, 생활의 이치를 통해 자연스레 드러나는 진리라는 생각과 함께 “보고, 듣고, 말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는 게 그대로 불법”이라는 대행스님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불교에 문외한인 사람이 읽어도 생활을 읽는 것 같은 재미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용타스님, 대원정사)와, “재미로 치자면 우등생 일는지 몰라도 구도의 흔적을 찾았다면 형편없는 열등생”이라는 솔직담백한 입담이 장점인 현진스님의 《두번째 출가》(새날)나 《불국의 아침을 여는 풍경소리》(윤월, 대흥기획), 덕진스님의 포교 수행담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우리출판사)도 부처의 가르침이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일깨운다. 교리에 접근한 명상록을 비롯해서 스님이 종교생활 중 생기는 어려웠던 개인사들을 적은 수필집에 이르기까지 성격도 다양하다.

《파리나 개미도 부처님 같이 존경하라》(문일석, 백성)는 성철스님의 미공개 일화 150가지를 소개한다. 예를 들어 성철 스님이 5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는 말은 언론이 잘못 알린 것이지만 영어만큼은 썩 유창

했다는 이야기 등 사사로운 듯하지만 글 한편마다 생각의 단초를 물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재미있는 선 이야기 100》(신지우 편저, 불교시대사)는 선승들의 선 수행담과 선어록을 담았다. 속인들이 보자면야 말장난 같기도 한 선문답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 닿는 풍경을 대할 수 있다.

불경 속에서 차분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법구경》은 세속의 때를 말끔히 씻어내는 데 으뜸이다. 《법구경》은 여러 출판사가 앞다투어 출간했는데, 그중에서 김달진 시인이 번역하고 현암사에서 펴낸 아담한 책이 나름대로 독특한 재미를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읽히는 번역문에 한자 원문, 김달진 시인의 사색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짧은 글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세상이 힘들 때는 “잘 다루어진 노새도 좋고, 인터스에서 나는 말도 좋고, 큰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도 좋다. 자기를 더 잘 다루는 사람은 더욱 좋다”는 《법구경》의 한 구절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 듯하다.

〈이성수〉